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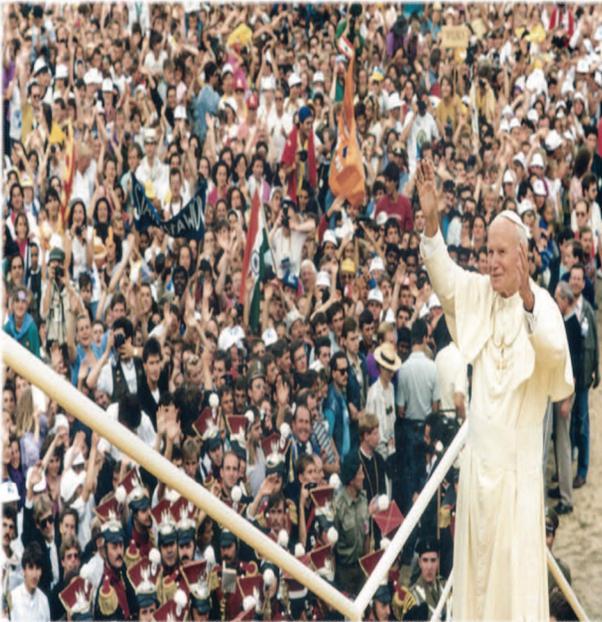
못자리

1월



제 1720호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못자리 친구들, 2027년 8월 전 세계 청년·청소년들이 교황님의 초대로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청년대회(WYD/JMJ)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못자리는 역대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를 담아보려 해요.

첫 번째 소개할 개최지는 로마(이탈리아)예요.

1986년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1베드 3,15)라는 주제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처음으로 청년들을 초대하셨어요.

오늘의 복음

1월 4일 주님 공현 대축일 (마태 2,1-12)

1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야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 '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8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수녀님의 주일학교 시절



Sr. 이수연 베로니카

못자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구청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이 베로니카 수녀님이예요^^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수녀님은 주일학교 시절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면
하느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지를 쓰고 나면
왠지 하느님과 더 친해진 것 같아서 기뻐어요.
우리 친구들도 새해를 시작하며
하느님께 친구들의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기도도 좋고, 편지도 좋고, 노래도 좋아요^^
못자리 친구들이 하느님 곁에서 늘 행복하기를
수녀님이 기도할게요~!

우 리 들 이 야 기 ★



★용상동 성당 4학년 권연우 레지나

동방박사들은 별을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물약 세가지 선물을 드리며
 경배 했다.
 황금은 귀한 것 이라서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유황은 제사때 연기를 피우는 것으로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연결한다는 뜻이고,
 물약은 장례식때 쓰는 물건 으로 우리를
 위해 겪으실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을
 의미한다고 한다.



★용상동 성당 5학년 류현중 다윗

오늘의 복음

1월 11일 주님 세례 축일 <마태 3,13-17>

13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15 예수님께서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16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팡! 😍 팡! 해외탐방!



로마를 소개합니다!



로마(Roma) 바티칸에는 교황님이 계시죠~! 로마 사람들은 밝고 따듯하고, 음식과 가족, 인사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로마에는 피자, 파스타, 젤라또가 유명해요~! 서로 만나면 Ciao!(차오!) 라고 미소지으며 인사를 나누어요.^-^
그럼 로마에서 쓰는 짧고 간단한 이탈리아어를 소개할게요~

- ▷ 안녕! Ciao! (차오!) ▷ 고마워요! Grazie! (그라찌에!)
- ▶ 괜찮아요! Prego! (프레고!) ▶ 맛있게 드세요! Buon appetito!"(부온 아페띠토!)
- ▷ 맛있어요! È buono! (에 부오노!) ▷ 예뻐요! È bello! (에 벨로!)
- ▶ 얼마예요? Quanto costa? (퀀토 코스타?)
- ▷ 화장실이 어디예요? Dov'è il bagno? (도베 일 바뇨?)

우 리 들 이 야 기 ★



★용상동 성당 1학년 홍지윤 올리비아

‘아는 내 사랑하는 이들 내 마음에
드는 야들이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하느님은 왜 예수님이 마음에 든다고
했을까? 궁금했다.

아마도 믿음직한 행동을 하기 때문
일 것 같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느님
마음에 드는 딸이 될 것 같다.



★용상동 성당 3학년 홍서현 플로라

오늘의 복음

1월 18일 연중 제2주일 <요한 1,29-34>

그때에 29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미션 UP! UP! UP!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을 소개할게요~
1월 미션은 **"우리 성당 주변을 돌며 쓰레기 줍기"**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사진을
안동 교구청 사목국 메일(sa3119@nate.com)로 보내주세요~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곳도 고을 찾으세요.



오늘의 복음

1월 25일 연중 제3주일 <마태 4,12-17>

12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13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14 이사가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5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구약 성경 인물 이야기

아담[Adam]과
하와[Hawwa/Eve]



아담은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만드신 '첫 사람'이에요. 하느님께서서는 아담이 혼자 지내지 않도록 아담의 '협력자'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살게 하셨는데, 어느날 하느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따르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은 슬퍼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나 열매를 따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지 마라."

(창세 2,16-17)

퍼즐 가로세로

책	말	성	크	오	가	복	된	자	물
프	란	모	리	전	바	라	교	마	해
은	혜	마	스	평	마	방	자	황	꽃
훈	모	리	마	화	티	갈	아	칭	님
부	떡	아	스	들	울	예	비	자	빵
카	별	겨	가	산	힘	희	망	강	꿈
니	님	로	성	빛	침	임	마	드	로
미	사	보	너	지	창	주	님	베	리
발	행	밤	성	꿈	순	엘	내	가	사
엄	손	고	사	길	여	레	먼	길	젬

- 1969년부터 새롭게 지정되어 1월1일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축일은 천주의 ○○ ○○○대축일입니다.
- 로마교구의 주교님이며, 베드로 사도의 정통 후계자이고, 가톨릭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이 분은 누구일까요?
- 세례를 받기 전 교리를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기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관련된 성지나 순교지 등을 방문하며 기도하는 신앙행위를 무엇이라 하나요?
- 전례 안에서 겸손과 공경의 의미로 미사 중에 여성 신자들이 머리를 덮기 위해 사용하는 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주간 퀴즈

<1주간> : 주님 공현 대축일

1. 오늘 복음을 잘 읽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을 보고 그분께 ()하러 왔습니다.

2. 오늘 복음을 잘 읽고 율법 학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어디라고 말했나요?

① 갈릴래아 ② 유다 베들레헴 ③ 예리코 ④ 예루살렘

<2주간> : 주님 세례 축일

1. 오늘 복음 말씀을 잘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아요.

요한 : "제가 선생님께 ()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예수님 :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을 이루어야 합니다."

① 축복, 꿈 ② 세례, 의로움 ③ 세례, 꿈 ④ 축복, 의로움

2.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올 때 하늘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왔는지 적어보아요.

()

뭇자리 카페에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3주간> : 연중 제2주일

1.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는 호칭을 찾아보아요.
 - ① 하느님의 강아지
 - ② 하느님의 어린낙타
 - ③ 하느님의 어린양
 - ④ 하느님의 어린고양이
2. 오늘 복음을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이다.'

<4주간> : 연중 제3주일

1.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 ① 세리
 - ② 율법학자
 - ③ 목수
 - ④ 어부
2. 오늘 복음을 잘 읽고 다음 문장을 완성해보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하여라. ()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11월 30일 정답자

북 면 남윤서 최소민

당첨자



못자리 친구들의
참여를 기다릴게요~!



알림판

못자리 친구들!

못자리 1월호 보면서 새롭게 개편된 코너를 발견했나요?

을 한해 못자리에서는 세계청년대회(2027WYD / 2027JMJ) / 2027GMG)를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친구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하길 바라요~^^

2026년 새해! 하느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 2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2월 1일 : 개운동 성당
- 2월 22일 : 남성동 성당

(※ 원고는 1월 6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1) 세계청년대회를 영어권에서는 WYD (World Youth Day)라고 하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어권에서는 JMJ (Journées Mondiales de la jeunesse / Jornadas Mundiales de la Juventud), 이탈리아어로는 GMG (Giornata Mondiale della Gioventu)라고 말한답니다.